



태안해안에 엄밀한 전설

무학대사(舞鶴大師)와 간월도(看月島)에 얽힌 전설들

간월도에는 조선 태조의 건국을 도와 왕사가 된 무학대사에 얽힌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온다.

무학대사가 서산군 인지면 모월리서 태어났는데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가 나라에 진 빚을 갚지 못해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 그래서 포졸들이 그의 어머니를 대신 잡아가는데 도중에 갑자기 산기가 있었다. 온 산천이 눈으로 덮여 있는데 한 곳에 만 눈이 없어 그곳에 해산을 하고 아기를 옷가지로 덮은 후 현청에 갔다. 현감은 사정 이야기를 듣고 무학의 어머니를 풀어 주었다. 그의 어머니가 달려와 보니 큰 학이 두 날개를 펴서 아기를 감싸고 있었다. 이에 감격한 어머니는 아이의 이름을 무학(舞鶴)이

라 지었고 아이를 낳은 곳을 ‘학이 들본 고개’라고 하여 ‘학들재’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무학은 이곳 간월도에 암자를 짓고 수도하는데 어느 날 달을 보고 홀연히 깨우치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 암자의 이름을 ‘간월암(看月庵)’이라고 하였고 후에 섬의 이름도 간월도라고 하였다

대사가 간월암에서 동자승 하나를 데리고 수도할 때 간월도에는 쌀 나오는 구멍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대사가 간월도를 떠난 뒤, 다른 중이 와서 보니 쌀 나오는 구멍이 너무 좁았다. 중은 쌀을 더 많이 나오게 하기 위한 욕심으로 그 구멍을 키웠다. 그러자 쌀은 나오지 않고 물이 솟았다고 한다.

간월도의 무당사 뒤에는 큰 떡갈나무가 서 있는데 무학대사가 간월도를 떠날 때 이 나무를 가리키며, “이 나무가 죽으면 내가 죽은 줄 알고, 이 나무가 살거든 내가 살아 있는 줄 아시오”하고 말한 후 떠났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떠난 후에 그가 거처하던 절은 무너져 없어지고 그 나무는 죽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죽었던 나무가 조선 후기에 한 번 살아났다고 한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무학대사가 인도 환생하여 살아난 것이라고 하여 거기에 절을 짓자고 하였다. 관청에서도 이 의견을 받아들여 절을 짓는데 앞장섰다고 한다. 그래서 지어진 절이 지금 있는 무당사이다.

무당사는 전에 무학대사가 있던 절의 터에 지었는데, 그 터는 명당자리라고 전한다. 무당사를 짓기 전에, 그 터에는 당시 등양(騰揚)했던 한양 조씨네가 묘를 썼었다. 그런데 그 집안에 우환이 생겨 묘를 옮기려고 파니, 거기서 봉이 날아갔으며, 시체는 썩지 않은 채 화기가 있었다고 한다.

무학대사가 한양을 도읍지로 정하고 대궐을 지을 때의 이야기도

간월도 마을



전하는데 대궐을 지을 때 지으려고 하면 자꾸 쓰러졌다고 한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고 길을 나서서 산골을 지나 느라니까 노인들이 밭을 갈면서 소를 보고 ‘무학이 같이 미련

한 소’라고 했다. 무학대사가 노인에게 가르침을 청하니, 노인은 “한양은 학의 형국이니 성을 먼저 쌓아 날개를 누르고 대궐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성부터 쌓고 대궐을 지으니 쓰러지지 않았다고.

또한 무학대사는 한양성 성문을 달 돌쩌귀를 만들 쇠를 얻기 위해 쇠를 먹는다는 불가사리를 잡아다가 불을 땀다. 그랬더니 불가사리는 도망을 가며 쇠똥을 썼다. 그는 그것을 녹여 돌쩌귀를 만들어 성문을 달았다고 한다.

각시바위

차를 타고 안면도에 오다 보면 다리 밑 오른쪽 갯펄에 바위가 하나 서 있는데 그 바위는 꼭 사람이 서 있는 듯한 모습이다. 이곳에도 전설 한 가락이 전해져 온다.

옛날에, 어느 오빠 부부와 누이동생이 조개를 캐러 그곳에 나왔는데 그곳은 지금도 둥근 언덕처럼 되어 있어서 주위가 알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도 모르게 생겨 있다. 그래서 지금도 그곳에는 사람이 잘 들어가지 않는데 세 사람도 조개 캐는 데에만 정신을 쏟다 보니, 물이 들어오는 것을 몰랐다.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건널 수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오빠가 아내와 동

생을 업고 해엄을 쳐서 건너가야 했는데 한꺼번에 업을 수가 없어서 동생부터 먼저 업고 건넜다. 그런데 그 사이에 물이 불어서 오빠는 다시 건너갈 수가 없었다고 한다. 결국 아내는 살려 달라고 울부짖으며 물살에 휩쓸려 내려갔다고 한다.

그 후에 아내가 서 있던 자리에는 바위가 생겨났고, 각시가 죽어서 생긴 바위라고 해서 ‘각시바위’라고 불려지고 있다고 한다. 그와 더불어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곁들여지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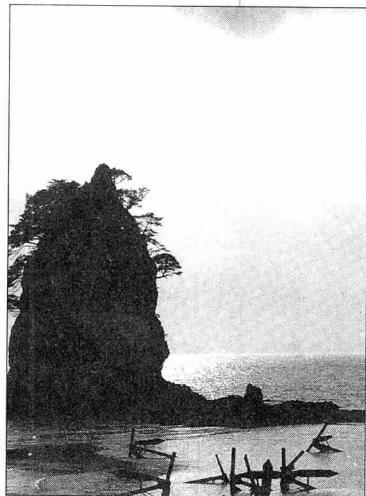
할미바위와 할아버바위

안면도 승언리에 있는 방포해수욕장에서 왼쪽 모퉁이를 돌아가면 큰 바위 두 개가 나란히 서 있다. 이 바위는 할미바위와 할아버바위라고 불리는데 거기에도 전설이 전해진다.

옛날에 그 곳에 늙은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 부부는 고기잡이를 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할아버지는 배를 타고 멀리까지 나가셨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록 할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비바람이 몹시 치던 그 날도 할머니는 걱정을 하며 바닷가에 서 있었는데 한밤중이 되자 할아버지가 바닷물을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반가움에 바닷물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고 한다.

그 후에 할아버지가 보였던 자리에는 둥글고 넓적한 바위가 생겨났고, 할머니가 서 있던 자리에는 뾰족한 바위가 생겨났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바위를 ‘할미바위’와 ‘할아버바위’라고 하고 있다고 한다.

할미바위와 할아버바위



황금산 앞 바다의 조기 떼를 몰고 간 황룡

서산시 대산면 독곶리 해안에 있는 황금산 앞바다에서 많이 잡히던 조기가 차츰차츰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민들은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다.

그 무렵, 그 근처에 활 잘 쏘는 사람의 꿈에 청룡이 나타나 말했다.

“나는 이 앞바다의 조기떼를 보호하는 용이다. 그런데, 황해도의 황룡이 나타나 조기떼를 연평도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황룡과 싸우고 있는데 혼자 힘으로는 이기기가 곤란하다. 그러니 당신이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황룡과 싸울 때, 활을 쏘되, 황룡을 보고 쏘지 말고, 내가 보일 때 화살을 쏘 주세요.”

그 사람은 약속된 장소로 나가 두 용이 싸우는 것을 지켜 보았다. 그 사람은 청룡이 자기가 보일 때 활을 당기라고 했지만, 그렇게 하면 청룡이 맞을 것 같아 황룡을 보고 활을 당겼다. 그러나, 화살이 날아가는 순간 황룡이 몸을 돌렸으므로 화살은 청룡이 맞았다.

청룡이 죽자 황룡은 조기떼를 다 연평도 쪽으로 몰아갔다. 그 후로 이곳에서는 조기가 잡히지 않는다고 한다.

청룡이 죽은 후에 다시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서 황금산이 세 번 푸르러지면 조기가 또 들어올 거라고 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황금산은 두 번 푸르러졌다고 한다. 어민들은 지금 나무가 굉장히 우거져 있어 기대가 크다고 한다.

거아도(居兒島)와 망미(望美)

옛날에 남면 앞에 있는 섬에는 귀양 간 사람들이 많이 살았는데 그들은 상투를 틀지 않고 머리를 길게 땋고 있었다. 그래서, 그 앞을 지나다니는 배에서 볼 때에는 항상 아이들만 사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 그 섬 이름을 거아도라 하였다.

그런데 지나다니는 배에서 보면 섬이 매우 아름답게 보였으므로 거울처럼 맑은 섬 즉, 경도(鏡島)라고도 한다.

남편에서 연락선이 운항하는 몽산포구를 망미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아름다운 거아도를 바라보는 곳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것이라 한다.

거아도 사람들은 섬의 크기에 비해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섬이 걸인이 바람을 지고 북쪽을 향하여 가는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백화산의 영사대(永思臺)

조선 세조 때 태안에 원님이 부임해서 보니,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못살았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안은 관장 목에서 파도가 거칠어서 세곡선이 자주 파손되었고 또 인위적으로 뱃사람들이 흉년이 들면 오다가 벼를 다 빼돌리고 나서 배를 가라앉혔다. 그러면 파손된 세곡선의 세곡을 이곳 주민들이 변상해 주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님은 ‘안비축천영락오강(雁飛蜀天影落吳江)’이라고 시를 지어 조정에 올렸다.

조정에서는 관찰사 신숙주를 보내어 사실을 알아보라고 하였다. 신숙주는 백화산에 올라가 사방을 살핀 후에 사실을 밝혀,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게 해 주었다. 그리고, 태안읍 인평리와 도내리의 육지를 파서 운하를 만들려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끝을 맺지 못하고 한양으로 올라갔다.

이 지방에서는 관찰사의 은혜를 길이 잊을 수 없다고 하여 바위에 ‘영사대(永思臺)’라고 새겼는데, 이것이 백화산에 지금도 남아 있다.